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 1004군인교회를 중심 -

An Interim Assessment and Suggestion for Vision 2020 Movement

정재원 Jeong, Jae Won

- 17사단 군종참모
- 신반포중앙교회
- 풀러 신학대학원수학
- 총신대 대학원(Ph. D)
- 예비역군목(#50)
- 현 사랑의교회 부목사



1. 들어가는 말

비전2020실천운동이 선포되고 태동하던 1990년대 후반기 군교회들은 병사들로 넘쳐났다. 거의 모든 부대들이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등병들은 인성교육 및 사고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해야 했고, 그들 대부분은 교회로 몰려들었다. 반강제적 참석 지시가 아니더라도 숨 막히는 내무반에서 잠시라도 떠나기를 원

하는 이등병들에게 교회는 탈출구였고 피난처였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무실에서는 선임들의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예배 후에 나눠 주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그리워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던 그 시절.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군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아가 군선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비전 2020’ 이 선포되고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2천 년대 들어서 병영문화는 어지러운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10여 년 만에 너무도 다른 모습의 병영 환경이 구축되었다. 종교행사 참석 강요는커녕 강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 강조되면서 병사들의 무종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국방부에 내려졌고, 이로 인해 군 신앙전력화의 대표 슬로건이었던 ‘1인1종교갓기운동’은 구시대 유물이 되었고, 무종교 병사들이 50%를 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군에 마련되었다. 현대식 병영시설 개선사업으로 1실 6인의 최신식 생활관들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2012년부터는 ‘동기생활관’ 제도가 운영되어 말 그대로 동기들끼리만 생활하는 편안한 생활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병 상호간의 관계도 과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군의 급격한 변화는 군선교의 환경과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믿음이 없는 병사들에게 더 이상 교회는 피난처나 탈출구가 아니며, 교회보다 더 편리하고 재미있는 여가생활이 생활관에서, 체육관에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군종목사들은 군선교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년째 추진되어 오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이런 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추진 동

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18년간의 각종 통계들과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평가해 보려고 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이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 2020년까지 이제 7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향후 7년의 시간이 지난 18년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 비전2020실천운동 고찰

1) 비전2020실천운동이란?

비전2020실천운동은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미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3만여 명을 제외한 27만여 명 중에서 매년 22만여 명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이미 세례 받고 군에 들어오는 3만여 명과 군에 입대한 후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22만여 명을 장성한 기독교 신자 장병으로 양육한 후 민간교회로 매년 25만여 명씩 파송한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이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민간교회로 넘겨진 국군장병 한 명이 가장이 되어 가정을 세울 경우 최소한 4명의 기독교 신자 가정이 된다고 판단할 때 25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은 100만여 명 기독교 신자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2020년도까지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020년도까지 새로운 기독교 신자가 2,500만여 명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1996년도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 1,200만여 명에 25년 동안 새롭게 증가될 2,500만여 명 기독교 신자를 합하여 도합 3,700만여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만약 세워진 목표대로 달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만여 개

의 민간교회에서 25년 동안 계속 전도할 것이므로 거의 3,700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무난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비전2020실천운동이란 2020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5천만 여 명 중 3,700만여 명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신앙전력화운동이며,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된, 명실공히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됨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선교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이자 목표이다.

2)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개념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개념은 1,000여 개 군인교회가 전도와 세례를 실시하고, 4만여 일반교회가 후원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에서는 군인교회와 일반교회를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역할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3,700만 성도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1천여 군인교회는 목표를 매년 25만 명의 기독교신자를 배출(군인세례 22만 명+입대 전 세례교인 3만 명)하여 2020년까지 625만 명(매년 25만 명×25년)을 배출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한 주요활동은 목표달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적극적인 전도와 세례를 주고 이들을 양육하고 일반교회에 연결해 주며, 아울러 군선교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5만여 개의 일반교회는 군에서 세례 받은 자를 미래교인으로 등록하고 매년 25만 명을 영입하여 25년 후 625만의 믿음의 가정으로 육성하여 3,700만 성도의 나라(625만 명×4인 가족+1,200만 명)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주요 활동은 기도와 교제(서신, 전화, 심방, 초청)를 통한 예비등록교인을 관리하고, 진중세례식을 후원하며 1:1 연결을 통한 고정 지원과 본인 전역 전에 그의 가족도 집중전도하고 전역 후에 교회

〈표1〉 Vision2020실천운동 전략¹

3 천 7 백 만 성 도 의 나 라	군 인 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 배출 (군인세례인원 22만 명+입대세례교인 3만 명) - 2020년까지 625만 명 배출 (매년 25만 명×25년)
	(전도 세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활동 :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을 위한 기도 - 적극적인 전도와 세례 - 양육과 일반교회 연결 - 군선교 기관과 협력
	일 반 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등록교인(매년군인신자 25만 명 영입) - 가정복음화 : 625만 믿음의 가정 (매년 25만 명×25년) - 민족복음화 : 3,700만 성도의 나라 (625만 명×4인 가족=2,500만 명) (매년 25만 명×25년)
	(후원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활동 :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P 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 - 예비등록교인관리: 기도, 교제(서신, 전화, 심방, 초청) - 세례식 후원: 1:1 연결을 통한 고정지원 - 가족전도: 본인 전역 전 가족 집중전도 - 전역 후 영접: 본인 출석
	실 천 운 동 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만 명 후원교회 선정 연결 - 매년 25만 명 관리배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만 명 양육관리 후원교회 확대 관리 - 후원교회의 적극적인 실천 보장 - 군인교회, 일반교회 사역협력 총괄

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아주 특별한 선교」(창간호) (서울 :한국군선교연합회, 2002), 61.

에 출석하도록 영접하는 것이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이와 같이 군교회와 일반교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확인 하면서 21세기 기독교 운동 실천과 교단, 교회 연합사역 실천을 목표로 하며, 주요 활동은 미래출석교인을 양육, 종합관리하고, 군선교회원교회 육성과 지회를 육성하여 지역중심의 실천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비전2020실천운동 3대 중요전략²

(1) 전도전략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여만 명의 국군장병들 중에서 22만여 명의 영혼들을 전도 및 구원하여 진중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목표를 가진다.

(2) 양육전략

매년 세례 받고 군에 들어오는 3만여 명과 군에서 세례 받은 22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장성한 기독교 신자 장병으로 양육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3) 파송전략

매년 군대에서 제대하는 25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군인교회에서 민간교회로 안전하게 파송하는 것과 인수인계하는 목표를 가진다.

²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 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49.

4) 비전2020실천운동 5단계 실천전략³

(1) 1단계 전략: 입대 전 전도 및 양육

① 민간교회와 대학생 선교단체의 공조 전략

여기서는 교단별 청소년 연합집회 시, 대학생 선교단체 연합집회 시, 대형교회 청년 및 대학부 여성수련회 시 군대에서의 신앙생활을 소개한다.

②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 전략

해당 교회에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 대하여 입대 직전 파송예배를 드리고 입대 후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전역 후 환영예배를 드려 줌으로써 신앙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 주는 전략이다.

③ 군선교사 훈련과정 설치 운영 전략

연 2회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활용하여 사명감 있는 평신도 군선교사로 양육(군종병/기독교간부/신우회장)하는 전략이다.

(2) 2단계 전략: 입대 후 전도·세례 및 양육

① 진중전도와 세례를 통한 신자 확보 전략

군선교 전략 요충지를 집중하여 전도 및 세례를 베푸는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인가족들에게 세례를 준다. 특별히 진중 합동세례식을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전략(민간교회와 1:1 연결을 통한 안정적 지원)을 가진다. 또한 부대별로 진중전도와 세례 전략전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세례 신자들에게는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② 진중 군인신자를 양육하는 전략

이것은 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 군인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되 집사(안

³ Ibid., 54-55.

수) 후보신자, 장로 후보신자를 내는 필수과정으로 도입하고, 선발된 민간인 교육자를 통하여 군인교회에서 이러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3) 3단계 전략: 군인신자 교적카드 관리

이 전략은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봉투를 활용하여 군인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군인신자 교적카드를 작성·발송하고, 대대 군종병/연대 군종병/기독간부/여전도회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임명한 후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군인신자 연결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4) 4단계 전략: 군인신자와 군선교회원교회 연결

이 전략은 군목파송 11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하기로 등록한 교회를 군선교회원교회로 정하여 군인신자를 연결하는 것이다(연결통지서 월 1회 송부).

군선교회원교회는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시는 구 단위, 군은 읍·면 단위에 1개 처 이상)하고,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나 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청장년 평균출석 300명 이상 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근 거리에 있는 군선교회원교회로 연결(전산시스템 운용)하고, 일반 신청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한다.

(5) 5단계 전략: 미래출석교인(연결된 군인신자) 관리 및 양육

① 연결된 군인신자 관리방침

- a.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시
- b. 전역 후 반드시 본교회 등록 영접을 확인(종결)

- c. 21세기 한국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이론 체계화)
- d. 군인신자 관리기록카드(표준양식부록)에 의하여 약 24개월 양육 기록 유지
- e. 군선교회원교회 관리기록카드에 의하여 본부에서 관리
- ②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행
 - a. 사랑의 등록: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b. 사랑의 청지기: 1:1 집중관리자 선정 및 전담부서 조직
 - c. 사랑의 기도: 1:1:1 기도실천, 공식 집회 시 기도
 - d. 사랑의 편지: 매월 서신, 주보, 책자 등 후송
 - e. 사랑의 선물: 절기별 기호품 선물전달
 - f. 사랑의 심방: 연 1회 부대 방문심방
 - g. 사랑의 초청: 휴가 외박 시 교회로 초청
 - h. 사랑의 영접: 전역 시 영접 환영 예배
 - I. 사랑의 전도: 가족전도의 기회로 활용(평소)
 - j. 사랑의 헌금: 전도, 세례경비 후원(1명 세례 시 3천 원)

5)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제⁴

- ① 제1모텔 - 중보기도사역
- ② 제2모텔 - 군선교사 파송(입대 전 청년 양육, 청년비전캠프)
- ③ 제3모텔 - 군인신자 결연양육(사랑의 10대 실천사항)
- ④ 제4모텔 - 군세례장병 가정 전도(VIP 가족 전도)
- ⑤ 제5모텔 - 문화사역(위문집회, 찬양, 공연, 영상물 등)
- ⑥ 제6모텔 - 진중세례 집례 및 후원
- ⑦ 제7모텔 - 군선교 교역자 파송 및 후원

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사역 매뉴얼 22판」(2011), 30-45.

⑧ 제8모델 - 군선교연합회 정기 후원회원 등록

6)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 및 사역 분담⁵

〈표2〉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 및 사역 분담

구 분	군 인 교 회	군선교연합회(MEAK)	군선교회원교회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앙전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 사기진작 명량한 병영생활 조성 국가 공인 엘리트 청년 전도/결연/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 연결(군세례인원 22만 명 + 입대세례교인 3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기독교운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족·인류복음화 기여 군종목사파송 11개 교단 공동협력 한국교회 연합사역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부흥/출석예정교인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5만 명 군세례신자 연결 지역복음화/VIP가족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5만 명 × 25년 = 625만 가정 민족복음화/3,700만 성도의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만 명 × 4인 가족 = 2,500만 명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도 - 세례(침례) 연결 - 명단수집, 확인 양육 - 예배출석, 성경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종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중심의 실천 - 군목파송 12개 교단과 공동 협력 사업전개 - 군선교회원교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 - 기도, 물질 양육 - 출석예정교인등록, 관리 전도 - VIP(귀빈) 가족전도
전 술 (실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신신우 전도 ② 결신전우 세례(침례) ③ 초신전우 양육 ④ 양육전우 결연 ⑤ 결연전우 관리 비전 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교회 관련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과 민을 연결하는 전문 창구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개발 ② 실무업무 전체 ③ 교육(군인교회, 회원교회) ④ 홍보 ⑤ 전산(군인교회, 회원교회, 중앙본부, 전국지회) ⑥ 방문활동(군인교회, 회원교회) ⑦ 후원확보(목적후원, 정기후원) ⑧ 군선교사 훈련(군입대 예정자) ⑨ 특별예배 ⑩ 중보기도 서명운동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연합 조찬기도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선교회원교회 9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모델 - 군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② 2모델 - 본교회 출석 군인신자 양육관리 ③ 3모델 - 출석예정교인 양육(사랑의 10대 실천중심) ④ 4모델 - VIP 가족전도 ⑤ 5모델 - 진중세례(침례) 및 후원 ⑥ 6모델 - 군선교 교역자 파송 및 후원 ⑦ 7모델 - 군선교사업 참여 및 후원 ⑧ 8모델 - 문화사역 및 위문활동 ⑨ 9모델 - 상기 모델 중 2가지 이상 모델 실천

구 분	군 인 교 회	군선교연합회(MEAK)	군선교회원교회
출석 예정 교인 연결 체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도/진중세례(침례) 군인 신자카드 작성 및 전산입력 군인신자카드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선교연합회(비전2020본부) 군인신자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예배 출석 - 초신자 성경공부 실시 - 비전 부조직 및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신자카드접수(전산디스크) 분류/입력전산처리 근무부대 주소확인 명단 - 군선교회원교회 전송 군선교회원교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본부) - 지방(지회) 종합점검 및 정책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지기 임명 ⑥ 선물 보내기 ② 전도특공대 ⑦ 심방하기 편성 ③ 기도하기 ⑧ 초청하기 ④ VIP가족전도 ⑨ 영접하기 ⑤ 편지 보내기 ⑩ 후원하기 VIP(귀빈)가족전도 10대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도대상자 ⑥ 사랑의선물 등록 보내기 ② 전도특공대 ⑦ 사랑의 만남 편성 ③ 사랑의 기도 ⑧ 사랑의 관계성 확인 ④ 사랑의 편지 ⑨ 사랑의 복음 제시 ⑤ 사랑의 전화 ⑩ 사랑의 초청 군선교사 파송(기독교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학교교사, 청년대학부 임원, 성가대원 - 군복무기간을 군선교기간 병행 군선교연합회 제시 업무 사항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실무교육 참여 - 행정사항 실행 - 모델교회를 목표로 실천 - 각종 사례수집 전파 - 중보기도 회원확보(서명운동 참여) - 전 교인 대상 특별예배, 홍보설명회 실시

7)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비전2020실천운동의 선교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되고 있다. 첫째, 군선교를 통한 세례장병 25만 명이 매년 일정 수준의 그리

⁵ Ibid., 28.

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배출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군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 정도로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둘째, 이 세례 장병이 제대 후 민간교회나 학교, 직장에도 모두 연계되어 교회에 소속되고, 지속적인 양육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이 한 가정(4인 가족 및 친지)을 이룰 때 그 가정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비록 현 교회의 신자 증가의 정 체현상 속에서도 전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교회가 성장해야 하며, 교회학교를 통한 젊은이들의 전도와 양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기독교가 복음통일과 세계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전2020 실천운동의 목표달성(75% 복음화)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이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양적·질적 성장의 동시적 목표와 수준의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회 신뢰회복과 한국교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교회부흥이 뒤따르지 않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 달성은 무가치하며 의미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영혼구원과 치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한국인의 꿈을 주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이웃에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비전 2020실천운동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달성될 것이다.⁶

8)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창설⁷

⁶ 정성길, “비전 2020 군선교 실천운동을 통한 민족복음화 선교전략 연구”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1999), 52-53.

⁷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 실천운동 교육 자료집」(1999), 10-16.

2020년까지 3,700만 명 정도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추진본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7년 11월 20일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부설기구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위원장에 이종윤 목사를, 본부장에 이사 이필섭 장로를 선임 추대하여 1998년 2월 23일에 창설되었다.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군인 및 일반교회의 군선교사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통합하여 비전2020의 3대 실천과제인 군의 전도 및 세례, 교회 및 기관의 기도와 재정후원, 군인신자들의 일반교회 연결 및 관리활동을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당시 군목 파송 10개 교단⁸ 총무와 교단장,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회원교회(당시 명칭 등록교회)들이 각각 비전2020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비전2020운동은 한국 예비역 기독교장교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민간교회가 연합하여 추진하는 선교운동이 되었고, 21세기 민족복음화를 위한 명확한 선교전략으로 인정을 받고 이를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9)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개과정

1996년 진중세례 목표인원을 수립하여 세례운동으로 시작한 비전 2020실천운동은 1998년 민간교회들 가운데 군선교회원교회를 지정하여 세례 받은 장병들과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⁸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합동, 통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이다.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까지 11개 교단이다.

세례와 더불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양육의 문제를 위해 장병들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대급 교회들을 신축하거나 보수하고, 대대급 교회들을 목회할 민간 지원 성직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민간 지원 성직자들 교육을 위해 한국 군선교 교육원을 개설하여 13주 과정으로 군선교학, 군목회학, 군종학, 군상담학 등 4개 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전반기까지 13개 기수가 교육을 받았으며 총 수료인원은 약 640명에 이른다. 또한 장병들 양육을 위해 「좋은 군사」, 「더 좋은 군사」, 「TEE영상교육자료」 등 교재를 발간하여 보급하였으며, 최근에는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사고예방이라는 군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병영 내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장병들을 좋은 군사로 양성하여 실천적인 크리스천이 되게 함으로써 건강한 병영을 만들고 이를 위해 1004군인교회 모든 장병들이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천사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표3〉 연도별 군선교 교역자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담	-	-	-	-	-	-	341
비전담	-	-	-	-	-	-	134
총계	404	-	-	-	-	684	475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담	-	354	389	370	367	388	362
비전담	-	268	287	274	223	222	216
총계	680	622	676	644	590	610	578

〈표4〉 교단별 군선교 교역자 현황 및 군선교교육원 수료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사역구분별				계	직분별			
	전담 (교육원)	비전담 (교육원)	65세 초과자	불명		목사	강도사	전도사	기타
군종목사 파송교단	고신	13 (12)	4			17	17		
	기감	94 (74)	26 (7)			120	93		27
	기성	3 (3)	7			10	9		1
	기장	-	6		1	7	7		
	기침	30 (18)	11 (3)	1	1	43	41		2
	기하성	12 (9)	7 (2)	1	1	21	19		2
	대신	29 (23)	7 (1)		1	37	36		1
	백석	31 (25)	7 (3)	3		41	36	1	4
	예성	16 (14)	3 (1)		1	20	17		3
	통합	62 (47)	44 (12)	3		109	98		11
	합동	56 (44)	43 (13)	11	2	112	109		3
기 타	40 (30)	33 (4)	4	1	78	74		4	
불 명		1		6	7	7			
합 계	386 (299)	199 (46)	23	14	622	563	1	58	

〈표5〉 연도별 교회 신축 및 증개축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축	41	26	25	29	39	33	31	37
증개축	4	5	7	10	8	15	15	8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축	26	29	31	27	18	18	26	436
증개축	22	18	20	14	18	11	9	184

3. 각종 통계를 통한 비전2020실천운동 평가

1) 진중세례 통계

〈표6〉 진중세례 통계

연도	세례(기)	영세(천)	수계(불)
1996	190,000	4,739	62,136
1997	177,003	6,597	77,570
1998	207,951	6,597	77,570
1999	216,080	10,618	80,607
2000	187,156	14,512	80,539
2001	186,959	21,387	83,317
2002	182,230	19,687	81,542
2003	155,767	19,100	72,507
2004	161,825	22,626	67,268
2005	162,260	28,106	67,744
2006	154,808	27,233	62,184
2007	153,225	34,001	61,967
2008	174,550	51,734	69,524
2009	171,435	48,629	77,944
2010	182,614	35,684	98,944
2011	184,320	30,190	92,328
2012	177,110	33,012	
계	2,658,290	414,452	1,213,691

※ 세례는 군선교연합회에서 발표한 국군 통계임. 영세와 수계는 육군 군종병과 10년사에 기재된 육군만의 통계임.

2) 육군 신자 통계

〈표7〉 육군 신자 통계

연도	신자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1996	431,752	245,424	61,779	123,754		795
1997	417,097	239,604	59,988	116,747		760
1998	429,172	248,137	61,030	119,101		904
1999	432,573	247,936	58,918	124,965		754
2000	427,218	244,858	60,825	120,732		803
2001	438,449	253,059	66,169	118,499		722
2002	416,026	229,044	71,275	114,682		1,025
2003	411,127	226,382	70,129	113,622		994
2004	443,120	244,652	78,169	119,140		1,159
2005	356,327	196,081	62,722	96,572		952
2006	338,058	184,464	58,500	93,872	526	696
2007	303,138	160,942	57,426	83,187	819	764
2008	284,175	156,661	50,162	75,896	901	555
2009	281,147	152,802	48,629	77,944	1,132	640
2010	292,406	160,974	49,778	79,444	1,607	603
2011	253,481	140,970	44,099	66,556	1,286	570
2012	261,807	148,271	45,281	66,150	1,491	614

3) 연도별 수세자 및 회원교회 결연 현황 통계

〈표8〉 연도별 수세자 및 회원교회 결연 현황 통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세자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명단수집	11,077	37,129	128,535	143,996	111,798
연결인원	8,052	30,430	96,393	102,881	110,248
결연인원	-	-	2,273	6,796	10,196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세자	155,767	161,825	162,260	154,808	153,225
명단수집	92,810	114,434	107,928	146,955	122,637
연결인원	68,965	100,815	93,212	89,135	105,160
결연인원	4,094	37,332	28,764	23,922	16,740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세자	174,550	171,274	182,614	184,320	177,110
명단수집	163,733	122,781	132,744	147,178	131,438
연결인원	104,234	104,393	108,035	127,285	108,562
결연인원	19,933	13,211	14,734	14,195	

※ 위의 통계표에 나오는 명단수집은 수세자들이 세례 후 작성한 기록카드 수집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연결인원은 이 명단을 군선교회원교회에 통보한 인원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편지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자대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결연인원은 연결인원들 가운데 정확한 부대주소를 파악하여 군선교회원교회에 통보해 준 인원을 말한다.

4) 육군 00사단 신교대 성례인원 통계

〈표9〉 육군 00사단 신교대 성례인원 통계

기수	세례	영세	수계	계	중대총원	비고
11-28	124	30	34	188	163	+25
12-1	327	24	178	613	483	+130
12-2						
12-3	331	18	135	547	443	+104
12-4						
12-5	185	33	-	246	280	-
12-6	171	23	-	252	273	-
12-7	377	42	144	563	538	+25
12-8						
12-9	146	7	-	153	274	-
12-10	196	23	129	390	268	+122
12-11	157	23	-	233	268	-
12-12	165	47	-	243	254	-
12-13	163	64	120	368	270	+98
12-14	286	105	202	663	467	+196
12-15						
12-16	164	48	68	340	263	+77
12-17	159	31	105	312	249	+63
12-18	148	20	-	168	240	-
12-19	121	28	-	149	239	-

5) 통계표 분석

위의 통계표를 분석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진중세례 목표인원인 1년 22만 명을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

둘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약 18만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성과가 있었다.

셋째, 육군 신자 통계를 보면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되던 1996년 245,424명이던 기독교 신자가 2011년에는 148,271명으로 약 10만 명이 줄었다.

넷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인 군선교회원교회와의 결연을 통한 군세례장병 양육 및 관리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세례장병의 자대 배치를 추적하여 정확한 부대주소를 확보해서 군선교회원교회에 통보한 인원은 매년 세례장병의 10%에도 못 미쳤으며, 2004년도 23%가 가장 높은 경우였다. 구체적인 인원으로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세례인원 2,658,290명 가운데 정확한 자대주소가 회원교회로 통보된 인원은 192,550명으로 세례인원의 7.2%에 불과했다.

다섯째, 군세례장병들 중에는 타 종교 성례를 동시에 받은 장병들 상당수가 존재한다.

우리는 위의 사실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해 온 18년 동안 끊임없이 진중세례를 위해 매진해 왔는데 신자가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기독교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도 마찬가지로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53.1%로 10년 전인 1995년 50.7%보다 2.4%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군은 반대로 신자 수가 감소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군내

신자 수 감소 가운데 천주교 신자 수는 기독교와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독교는 10년 전의 19.7%에 비해 18.3%로 1.4% 감소하였고, 불교는 23.2%에서 22.8%로 0.4% 낮아진 반면, 천주교는 10.9%로 10년 전의 6.6%에 비해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에 군 신자 수에도 반영되어 천주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군의 모든 종교가 신자 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종교자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일반사회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군의 신자 수가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거나 1인 1종교 갖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군의 종교활동 강조가 무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 신자 수가 아니라 신자율 55%에 집착했던 우리의 태도 등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진중세례=그리스도인’이라는 등식이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도에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182,61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고스란히 군에 남아 있던 2011년도 신자조사에서 기독교 신자가 역대 최소치인 140,970명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2만 명이나 줄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군선교 전략이나 정책들을 절박한 심정으로 수정하고 재수립해야 한다. 군에서 세례 받은 형제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하고 순진한 생각으로는 군선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표8〉 연도별 수세자 및 군선교회원교회 결연 현황 통계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세례장병의 10% 내외만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되어 관리

되어졌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비전2020실천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또한 전방 OO사단 신교대에서 행해진 기독교 세례, 천주교 영세, 불교 수계 인원 통계표 〈표9〉는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성례를 받은 장병들의 수가 중대 총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수계 통계가 남아 있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총원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12-14, 15기 2개 중대는 중복 성례자들이 196명까지 생겨났다. 요즘 육군훈련소나 사단 신교대에서 장병들이 흔히 말하는 ‘트리플크라운’, ‘그랜드슬램’,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장병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신교대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육군 훈련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단 신교대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군선교 현장의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예전처럼 어떤 이유로든지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나중이라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세 종교의 성례를 모두 받았거나 두 종교의 성례를 받았다면 그의 종교적 정체성은 어떠할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대답은 자명하다.

4. 설문조사를 통한 비전2020실천운동 평가

18년 동안 추진되어 온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아주 다양하며,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견해와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제23회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시에 대상별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MCF 및 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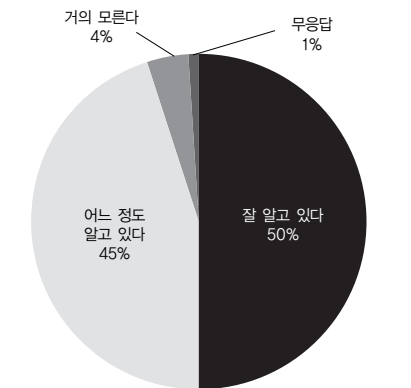
교회 성도, 군종병 및 신우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상별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종목사

설문조사에 응한 군종목사는 총 159명이었으며,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115명, 해군 15명, 공군 27명이었고, 계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 24명, 대위 71명, 소령 16명, 중령 5명, 대령 2명이었으며, 복무 기간으로 분류해 보면 1-5년 88명, 6-10년 30명, 11-15년 27명, 16년 이상이 12명이었다. 총 15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7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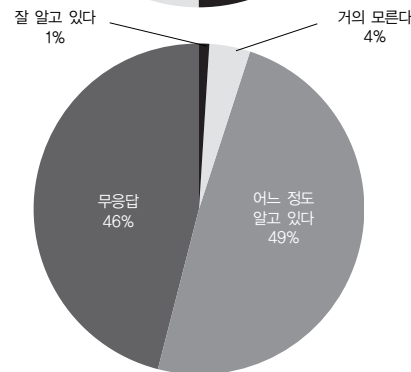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79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72명)
거의 모른다(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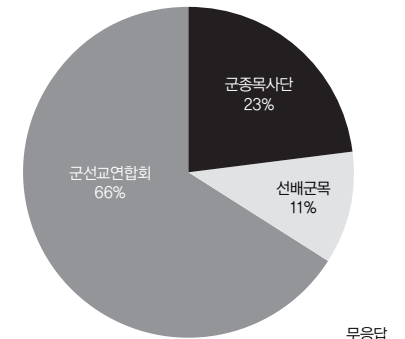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1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79명)
거의 모른다(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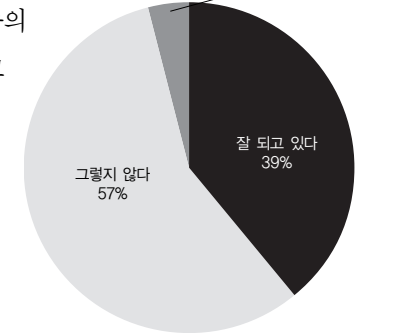
3. 비전2020운동 실천사항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주로 듣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군종목사단(40명)
선배군목(19명)
군선교연합회(1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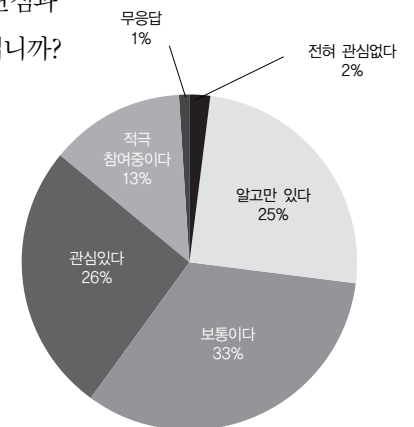
4.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62명)
그렇지 않다(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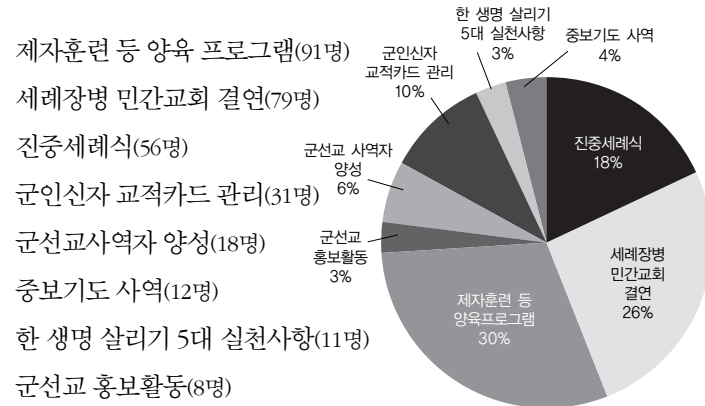


5. 목사님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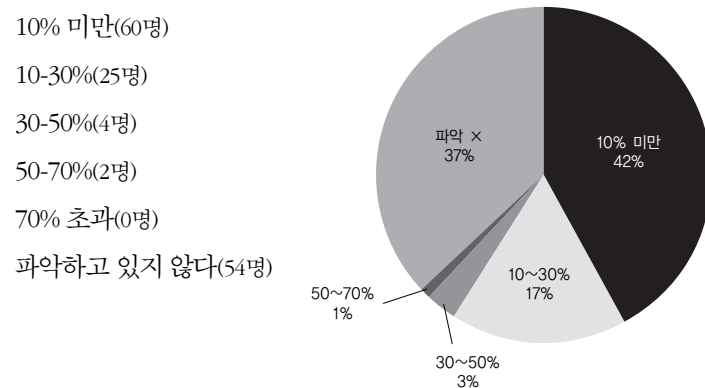
전혀 관심 없다(3명)
알고만 있다(40명)
보통이다(52명)
관심 있다(42명)
적극 참여 중이다(20명)



6.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전2020운동의 실천 분야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 교회 출석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율은 몇 % 정도입니까?



2) 군선교 교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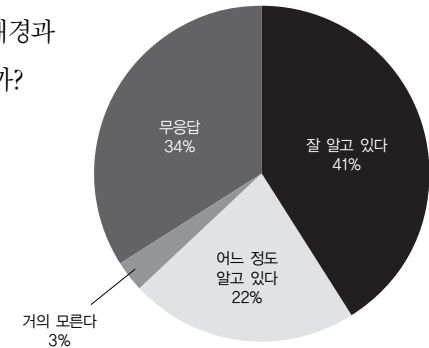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응한 군선교 교역자들은 총 91명이었으며,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85명, 해군은 없었으며, 공군이 5명이었다. 사역지별 분포를 보면, 중대급 이하 제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12명, 대대급 61명, 연대급

15명, 사단급 1명이었으며, 군선교 교역자로 사역한 기간을 살펴보면 1-5년 61명, 6-10년 15명, 11-15년 6명이었으며, 16년 이상이 8명이었다.

총 14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8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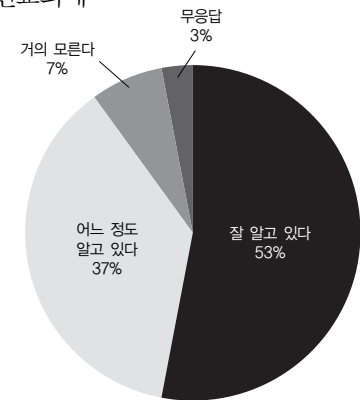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37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20명)
거의 모른다(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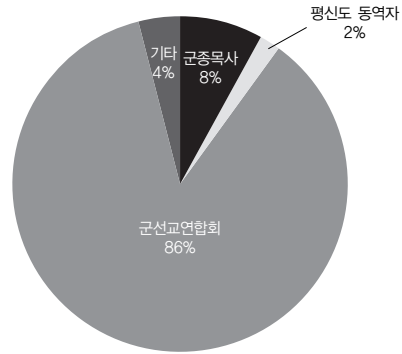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인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49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34명)
거의 모른다(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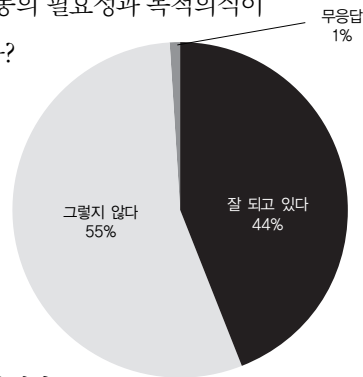
3. 비전2020운동 실천사항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주로 듣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군중목사(7명)
선배사역자(2명)
군선교연합회(78명)
기타(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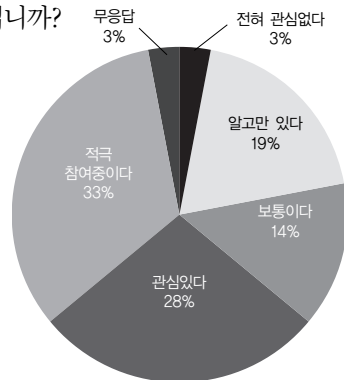
4. 군선교교역자들끼리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40명)
그렇지 않다(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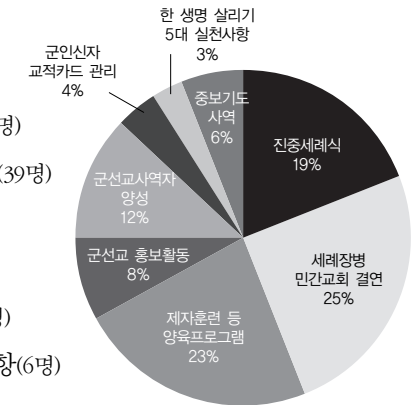
5. 목사님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3명)
알고만 있다(17명)
보통이다(13명)
관심 있다(25명)
적극 참여 중이다(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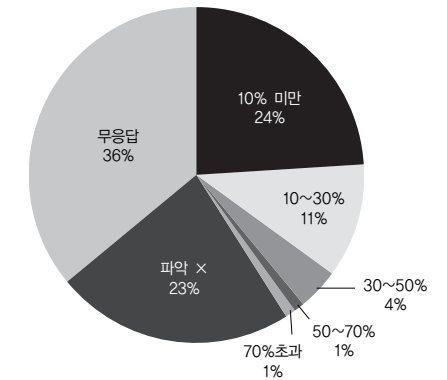
6.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비전2020운동의 실천 분야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중세례식(32명)
세례장병 민간교회 결연(43명)
제자훈련 등 양육 프로그램(39명)
군선교 홍보활동(14명)
군선교사역자 양성(20명)
군인신자 교적카드 관리(7명)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6명)
중보기도 사역(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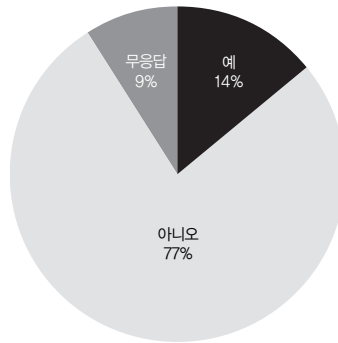
7. 귀 교회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율은 몇 % 정도입니까?

10% 미만(22명)
10~30%(10명)
30~50%(3명)
50~70%(1명)
70% 초과(1명)



12. 전역예정자들이 전역하기 전에
군선교회원교회들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까?

예(13명)
아니오(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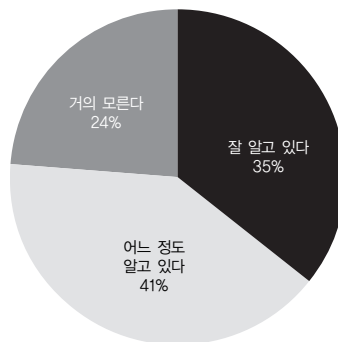
3) MCF 및 군교회 성도

설문조사에 응한 MCF 회원들은 총 120명이었으며,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97명, 해군은 10명, 공군이 9명이었다. 대상자들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하사 1명, 원사 6명, 준위 2명, 중위 2명, 대위 7명, 소령 16명, 중령 17명, 대령 7명, 준장 6명, 소장 4명이었으며, 군인교회를 출석하여 섬기고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1-5년 23명, 6-10년 20명, 11-15년 23명 그리고 16년 이상이 46명이었다.

총 12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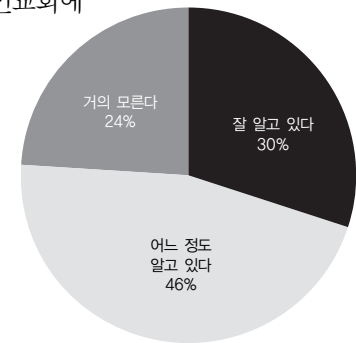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41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47명)
거의 모른다(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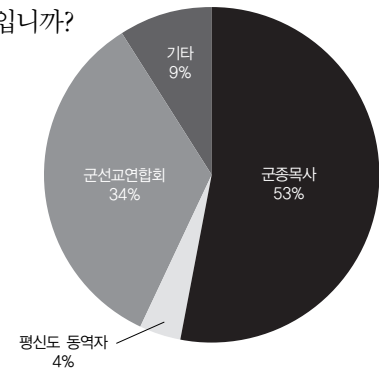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인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35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53명)
거의 모른다(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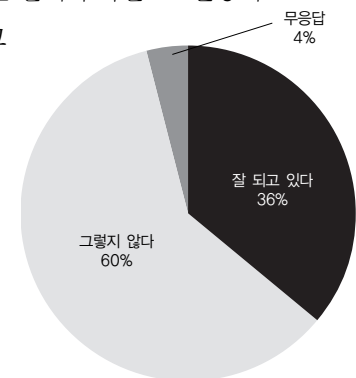
3. 비전2020운동 실천사항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주로 듣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군종목사(63명)
평신도 동역자(4명)
군선교연합회(40명)
기타(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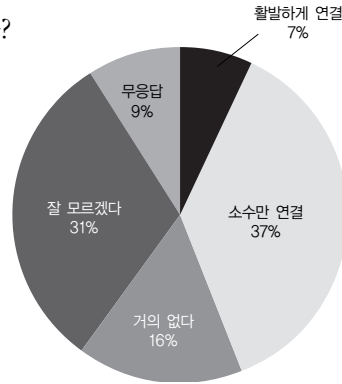
4. MCF 회원들이나 군인교회 신자들 안에서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62명)
그렇지 않다(91명)



7. 출석 교회 장병들이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활발하게 연결(8명)
소수만 연결(43명)
거의 없다(19명)
잘 모르겠다(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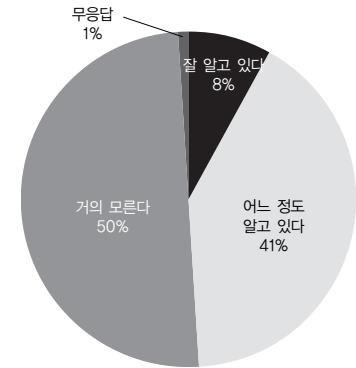
4) 군종병 및 신우

군종병 및 신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제23회 6·25 상기 기독교 장병 구국성회에 등록된 인원 현황을 참고하여 군별, 부대 형태별, 부대 위치별로 분류하여 설문조사 대상 부대들을 선정하여 특정한 부대에 조사 인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총 584명의 설문조사자가 회수되었고, 이를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520명, 해군 6명, 공군 53명이었으며, 계급별로는 이병 11명, 일병 178명, 상병 255명, 병장 48명이었고, 신앙이력으로 살펴보면 입대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55명, 3-10년차가 114명, 11년 이상 된 사람들이 57명, 모태신자가 348명으로 대부분의 형제들이 군에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총 8개 문항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개 문항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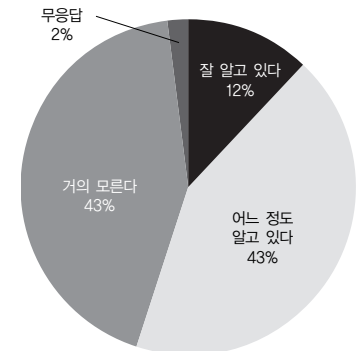
1. 비전2020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46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237명)
거의 모른다(2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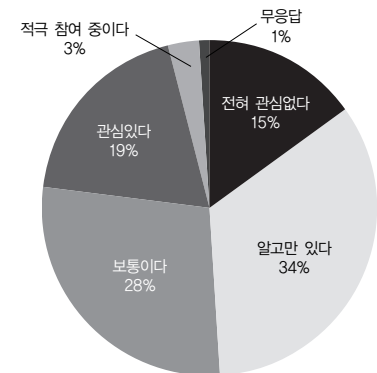
2. 비전2020운동의 실천 내용과 군종병 및 신우들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71명)
어느 정도 알고 있다(249명)
거의 모른다(254명)



3. 귀하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86명)
알고만 있다(197명)
보통이다(165명)
관심 있다(113명)
적극 참여 중이다(15명)



5)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비전2020실천운동이 군종목사를 비롯한 핵심 주체들에게 얼마만큼 이해되고 공감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군종목사들 가운데 50%만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26%만 관심이 있고 13%만 적극 참여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강조나 설명을 듣는 통로가 군선교연합회(66%), 군종목사단(23%), 선배나 동료 군목(11%)라고 응답하였으며,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 분야들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제자훈련 등 양육 프로그램(30%), 세례장병 민간교회 결연(26%), 진중세례식(18%), 군인신자 교적카드 관리, 군선교 사역자 양성, 중보기도 사역,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군선교 홍보활동 등의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현황을 묻는 질문에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군목이 54명이었고, 60명의 군목들이 10% 미만의 장병들만 결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설문 결과를 보면 군종목사단 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추진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로서의 기능 또한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군선교교육원을 통해 훈련받고 사역지에 배치받은 군선교 교역자들은 전반적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배경과 전개과정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33%의 교역자들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비전2020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여겨지며, 또한 눈여겨볼 대목은 군선교 교역자들끼리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5%의 교역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다. 또한 군종목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 출석 장병들의 민간교회 결연율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군선교 교역자들의 입장에서도 현재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MCF 회원들의 경우에도 MCF 회원들이나 군인교회 신자들 안에서 비전2020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의식이 잘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에 이르는 91명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군종병 및 신우들의 경우에도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각각 8%, 12%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19%, 적극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MCF 회원들과 군종병 및 신우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군종목사들의 설문결과가 이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 통계표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비전2020실천운동 문제점

각종 통계표 분석과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비전2020실천운동을 평가할 수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결과를 계량화된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전2020실천운동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중세례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군선교 활동과 군인교회 목회활동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18년간 지속되어 온 비전2020실천운동을 현 시점에서 단순히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각종 통계표와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냉철하게 인정해야 하고, 향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과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군선교 수행 핵심 주체들의 역량이 제대로 결집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장에 있는 군인교회와 유관기관들 모두가 선교 공동체로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진중세례운동만으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18년 동안의 세례통계와 신자통계는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주고 있다.

셋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군선교회원교회들과의 결연을 통한 관리 및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8년 동안 계속된 부대주소 타령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기 전에 대책이 시급하다.

넷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을 방해하는 오해와 갈등들이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과 군인교회 목회활동은 별개인가?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연합회의 프로그램인가?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왜 군선교연합회 내에 존재해야 하는가? 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단의 상급기관인가? 또는 군종목사단이 상급기관인가? 이런 갈등과 오해들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고 앞으로의 비전2020실천운동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군종목사들과—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수라고 하기도 어려운—군선교연합회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들과 오해들이 불식되지 않고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힘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비전2020실천운동의 내용은 군종목사들의 군 목회활동, 선교활동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표현이 다를 뿐 군종목사들이 장병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 비전2020실

천운동의 핵심이다. 그런데 왜 현재와 같은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까? 애초 비전2020실천운동이 선포되고 본부가 창설된 후 1998년 11월 13일에 한국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대회’ 당시 군목 파송 10개 교단 교단장과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회 원교회(당시 명칭 등록교회)들이 각각 비전2020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까지 하였고, 야심차게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언하였다. 그렇게 함께 시작한 비전2020실천운동이 왜 마치 군선교연합회가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오해되고 있으며, 전체의 역량을 모으는 일에 장애가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들의 자성과 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만약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비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마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걸로 주장하는 왜곡 및 회피의 자세로 향후 비전2020실천운동을 논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허공을 향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6. 향후 7년을 위한 제안

1) 군선교 주체로서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

누가 뭐래도 군선교의 핵심 주체들은 현역 군종목사들이다. 군종목사들은 군선교 교역자, MCF 회원 및 군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군종병 및 신우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군선교를 위해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운용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결국 군종목사들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결집시키지 않는 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군종목사단의 혁신이 필요하다. 군종목사단은 친목단체일 수 없다. 2012년 기준 180,497명의 군내 기독교 신자 장병들과 군인가족

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군종목사들의 사명을 인정한다면 군종목사단은 1004군인교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최고 기구일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종목사단은 자체 혁신 운동을 통해 군종목사들이 군선교 사명자로서 소명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조하고 효율적인 군선교 수행을 위해 토의하고 대처할 수 있는 조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를 제외하면 1년에 한두 번 현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현재의 형태는 결코 현장감 있는 선교 수행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즉각 대응하고 조치하는 상시 작동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군종목사단을 의사소통 및 교육의 기본 조직으로 삼고, 더 나아가 군인교회 총회 조직 같은 조직정비를 통해 군선교 수행에 합당한 살아 있는 조직이 되게 혁신해야 한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에 군종목사단 일원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하며, 군종목사단이 군선교의 주체라는 분명한 의식 제고 등 구체적인 혁신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군인신자 장병들의 실제적인 민간교회 결연을 위한 주소 확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3대 중요전략, 즉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 중 22만여 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전도전략, 군에 오기 전 이미 세례를 받은 3만여 명과 군에서 세례 받은 22만여 명의 장병들을 군교회와 민간교회가 함께 관리하고 양육한다는 양육전략, 매년 군대에서 제대하는 25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군인교회에서 민간교회로 안전하게 파송하고 인계하는 파송전략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3대 중요전략 가운데 진중세례식 등을 통한 전도전략의 경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사단 신교대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물론 한 해 세례목표 인원인 22만 명을 한 번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매년 약 18만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타 종교와의 중복 성례로 인한 부작용이나 진중세례식이 훈련기간 중에 이벤트화되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큰 성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전도전략 수행을 통해 훌륭한 선교적 바탕을 만들었음에도 다음 전략인 양육전략과 파송전략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세례를 베푼 후에는 전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군선교회원교회와의 결연을 통해 세례장병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종 자대주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주소가 확보되는 인원은 세례 인원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다수의 군선교 관계자들이 세례를 베푼 직후 세례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명단 제출과 관련하여 본인들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8>의 명단수집인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명단은 기본 자료일 뿐 필요한 것은 세례장병들이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최종 자대주소이므로 각급 부대교회가 모든 전입신자들의 기록카드를 2차로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세례장병들이 자대 배치 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허점이 있고, 또한 모든 부대교회의 군종목사들이나 군선교 교역자들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전체 세례장병 주소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단급 부대교회가 신교대와 보충중대를 두 축으로 세례장병들의 자대분류결과와 정확한 주소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1) 신병교육대-세례 장병 자대분류 결과 확보

육군의 경우 작년까지 2주간 별도로 운영하던 제2신교대를 폐지하고 신교대 훈련기간을 7주로 통합하였다. 5주 신병훈련 후 수료식을 하고 나머지 2주간은 이등병으로서 전투기술과 체력단련에 집중하게 한 것이다. 사단급 신교대에서 훈련받는 훈련병들은 사단 내에 배치되는 사단자원들과 타 부대로 배치 받는 외부자원들로 구분되며, 그 인원 비율은 다음의 <표10>과 같이 사단자원이 62%에 이른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5주 수료식 전에(대개는 4주차에) 사단자원들의 자대배치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단 부관부에서 연대급까지 분류하여 연대로 내려주면 연대에서 중대까지 최종 분류하여 다시 사단 부관부로 보고하게 되고, 사단 부관부는 이를 신교대에 통보해서 수료식 전에 부모님들에게 알려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때 사단 부관부와 협조하여 사단자원들의 자대분류 결과를 확보하면 많은 세례장병들의 정확한 자대주소를 확보하여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교대 세례장병 명부를 작성한다.
- ② 세례인원 가운데 사단자원과 외부자원을 분류한다.
- ③ 5주차 수료식 전에 사단 부관부로부터 사단자원 자대분류 결과를 확보한다.
- ④ 정확한 자대 주소를 확인하여 세례장병 명부에 기록한다.
- ⑤ 군인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군선교연합회에 세례장병 명단을 발송한다.
- ⑥ 세례 장병 명부를 예하대 교회에도 발송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⑦ 군선교연합회는 세례 장병들을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시킨다.
- ⑧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회원교회 결연 결과를 사단교회로 통보해 준다.

<표10>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 인원 현황

구 분	사단자원(사단내배치)	외부자원(타부대배치)	계
13-17기	194	105	298
13-27기	152	150	302
13-37기	166	126	292
13-47기	201	93	294
13-57기	188	111	299
13-67기	200	98	298
13-77기	181	62	243
13-87기	160	96	256
13-97기	120	120	240
계	1,562(62%)	960(38%)	2,522

(2) 사단 보충중대-육군훈련소 및 병과학교 수료 자원들 세례 여부 및 자대분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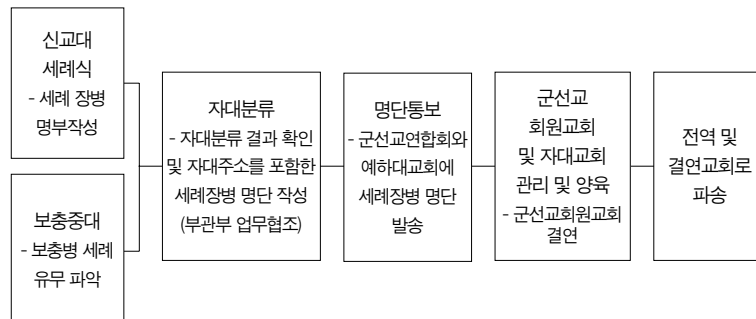
신교대를 운영하는 사단의 경우(사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5% 수준의 자원들을 사단 신교대에서 보충하지만 그 외의 인원들, 즉 육군훈련소 출신 인원들이나 종합군수학교, 종합행정학교, 군의학교, 상무대, 통신학교 등 병과학교를 거친 인원들은 반드시 사단 보충중대를 통하게 된다.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보충중대로 입소한 보충병들은 매주 화요일 자대분류를 거쳐 수요일에 배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의 자대분류는 연대급 분류에 그치고 수요일에 연대로 배치받은 후에 최종 부대분류를 하게 되며, 각 연대는 병사들의 분류결과를 사단 부관부로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신교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관부를 통해 최종 분류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단급 군종참모부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보충중대 입소 인원들 중에 군에 와서 세례를 받은 인원을 미리 조사해서 이 인원들에 한해서 자대분류 결과와 주소를 확보해서 군선교연합회로 통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매주 화요일 오전에 보충중대 입소 인원 중 세례장병을 조사하여 명부를 작성한다.
- ② 매주 목요일에 사단 부관부를 통해 자대 분류 결과를 확보한다.
- ③ 정확한 자대 주소를 확인하여 세례 장병 명부에 기록한다.
- ④ 군인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군선교연합회에 세례 장병 명단을 발송한다.
- ⑤ 세례 장병 명부를 예하대 교회에도 발송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⑥ 군선교연합회는 세례 장병들을 군선교회원교회와 결연시킨다.
- ⑦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회원교회 결연 결과를 사단교회로 통보해 준다.

〈표11〉 육군 17사단 보충중대 인원 현황(2013년도)

구 분	육군훈련소	병과학교교육	계
1월	3	70	73
2월	57	128	185
3월	1	112	113
4월	14	103	117
5월	28	114	162
6월	63	156	219
계	166	683	869

(3) 군세례장병 자대분류결과 및 주소파악 관련업무 체계도



(4) 군인신자 기록카드 명칭 및 양식 변경

앞서 언급한 대로 대다수의 군선교 관계자들이 세례를 베푼 직후 세례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명단제출과 관련하여 본인들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군인신자 기록카드 양식으로 두 차례 작성을 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과 양식을 진중세례장병 기록카드(1차)와 군인교회 전입신병 기록카드(2차)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3) 기타 제안들

논문의 분량과 초점 문제로 본 논문에 모두 신지를 못했지만 필자는 향후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육군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여 이미 조직되어 있는 해·공군 군인교회 총회와 연계하여 군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총회 산하 실행위원회와 지역 군목단을 통해 적시적이고 기동성 있는 선교를 수행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교적부, 구역성경공부 교재, 아동부 및 청소년부 성경공부 교재를 통일하는 등 군인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론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 후 양육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등 모든 군인교회가 동일한 선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훈련소와 신교대를 중심으로 한 진중세례운동 전략을 점차 수정하여 자대배치 후 세례운동을 확산시키고, 등록→양육→정착의 구도가 아니라 등록→정착→양육의 구도로 새신자 정착 운동을 전개하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목장, 반, 셀 등의 소그룹 활동을 시행하고, 하사 이상의 미혼 간부로 구성된 군인교회 청년부 조직 및 활용, 대대급 이하 교회 결연제도를 통한 협력 선교 그리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군선교 등

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문제들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2012년 국군장로연합회 주관 제1회 군선교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향후 군선교 현장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연구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7. 나오는 말

1996년 이래 군선교의 핵심이었던 비전2020실천운동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2020년도에 3,700만 명의 성도로 채워지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여러 가지 논리적 허점이 있고 다소 허황되게 들리기까지 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게 하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여 군선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발 역할을 했다. “군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 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군선교 현장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군선교의 후원자들인 우리나라 성도들의 가슴에 군선교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의 상황과 신학적 성향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연합사업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연합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비전2020실천운동의 상황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숙제들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이제 7년 남아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현장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을 고수하는 일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변화를 위해 군종목사를 비롯한 군선교 관계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다만, 군선교를 위한 전략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이 파괴력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하고, 현장

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막연한 낙관주의와 이상적인 논리에 빠져 현실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선교인가? 우리 모두 항상 생각해야 할 일이다.

• 부록(Appendix)

〈현역 및 예비역 군종목사들의 군선교 관련 논문들〉

번호	논문 제목	저자	연도	학위	학교
1	신세대 입영장병들을 위한 군선교 전략	권오민	2011	석사	총신대
2	변화하는 군선교를 위한 군목의 리더십	성건화	2009	석사	총신대
3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2008	박사	총신대
4	Vision2020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군선교의 선교학적 분석: 입대 전 신앙인으로 2000년 이후 육군에 복무한 사병들을 대상으로	남송현	2007	박사	총신대
5	미래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선교 개선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2007	박사	총신대
6	군목 정체성 분석과 군선교 전략 연구	전영권	2006	석사	장신대
7	Vision Camp를 통한 군선교 활성화 방안: 강철교회를 중심으로	한생현	2006	박사	장신대
8	효율적인 군선교 전략 연구 : 20사단, 23사단 사병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양재준	2005	석사	총신대
9	Vision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軍)선교 전략 연구: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상기	2004	석사	총신대
10	세례를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장승권	2004	석사	장신대

군선교신학 제11권 제13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발제논문 논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에 대한 논찬

— 1004군인교회를 중심 —

A Comment: An Interim Appraisal and Suggestion
of Vision 2020 Movement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Div., Th. M.),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대학원(Ph.D.), 예)군종목사, MEAK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계명대학교 출강, 현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군종목사로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정재원 목사님께서 “비전 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이라는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작금의 급격한 병영 문화의 변화 추이로 인해 진중 세례의 열도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상황과 더불어 군에서 세례 받은 장병의 민간교회와의 결연 현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최근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체적 논문 구성의 측면에서, 논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을 한 후 두 방면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 실태를 진단했

다. 하나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방법론인 진중세례 누적 통계 분석을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다른 하나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일선에서 있는 군종목사들, 군선교 교역자, MCF 및 군교회 성도 그리고 군종병 및 신우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 2020실천운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후 논자는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2020년에 이르는 향후 7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이르고 있다.

논자는 그의 논문의 중심 논제인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측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자료와 설문 결과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논자의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과학적 기법을 토대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 논문의 과학적 가치를 발한다고 본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요 방안이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례장병들을 민간 교회와 실제로 결연시키기 위한 주소확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논문의 실재성이 두드러진다고 판단된다.

논자가 비전2020실천운동과 관련된 제 통계표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적한 비전2020실천운동을 실행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들과 기타 제언들은 매우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논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논자가 제시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기우이자 노파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에 신중하게 몇 마디를 드려 본다.

먼저, 논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군종 목사들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이의 갈등과 오해들이 자리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루자는 한국교회의 비전인 비전2020실천운동이 내적 갈등 요인들로 인해 그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

다면 이는 큰일이다. 그 내적 갈등의 주요인이 인적 문제이든 재정적 문제이든 혹은 주도권 문제이든 무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적전 분열 양상을 빚는다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실행 의지가 현역 군종목사들보다도 군선교 교역자들이 더욱 높고 강하다는 통계 분석은 가히 충격적이다. 아무리 군종목사들의 업무가 무겁고 군선교의 환경이 힘들다고 해도 주 안에서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자 일’ (고전 10:13)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성으로써 감당하는 것이지, 원망이나 실망의 에너지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군종목사들은 각 교단으로부터 군대로 파송된 자랑스러운 성직자로서 60만 국군장병의 종교적 지배자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지도자이다. 군선교연합회는 일반교회와 성도들을 군복음화의 현장으로 안내하여 군선교에 협력하도록 결정적 섬김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 연합선교기관이다. 하나님은 군종목사들과 한국교회의 군선교 비전을 대변하는 군선교연합회 모두를 사랑하신다. 양자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섬기는 자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군선교의 두 기둥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진실함과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돕고 협력하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를 진정으로 권고 드린다.

다음으로 논자는 향후 7년을 위한 제안 가운데 군선교의 주체로서의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를 제안하고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 활성화의 주역인 군종목사님들이 불타는 사명감과 전문적 능력으로 직무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대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논자가 제안한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방안은 확일적 일방통행 식의 군종목사단 운영체제에서 군인교회 성도들이 망라된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논자의 이러한 강조는 논문 말미의 ‘기타 제안들’에서 다

시 반복되어 강조되는데, 이는 신중하게 고려해 볼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 판단된다.

특히 논자는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여 군선교정책을 수리하고 시행하는 일을 더욱 가속화시키되 교적부, 구역교재, 교회학교 교재 등을 통일시켜 궁극적으로 군인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론적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논자가 강조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극대화를 위한 군종목사단의 혁신 운동 전개는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물론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지는 제안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는 일과 비전2020실천운동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군인교회 총회조직을 공론화시키는 자체가 너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이자 노파심이 든다. 아무래도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치 에너지와 행정의 열정을 쏟아야 하는데, 과연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인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 부분을 감수할지 의문이 든다. 특히 현대는 제도적 권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군인교회 총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는 군의 안팎으로부터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리어 한국군종목사단은 관료적 계층구조인 총회를 조직하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네트워크 형태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를 조언 드린다.

정재원 목사님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이라는 귀한 논문이 한국교회가 그토록 열망하며 기도하는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